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1. 5.(목) 09:47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47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사무처 모두 합심해서 올해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행복을 드리는 방송통신 구현을 위해서 다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기자 분들께서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비판도 해 주시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과 또 국민의 방송통신 향상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 제68차, 제70차, 제71차, 제7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2월 22일에 있었던 제7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7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12월 27일에 있었던 제74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요입니다. '16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시상 일시는 3월 2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기본 방향으로 프로그램 분야 시상으로 기존 ‘뉴미디어’, ‘라디오’ 부문을 삭제하고, ‘다양성’ 부문을 신설하며 ‘창의발전’, ‘사회·문화’ 부문을 각 2편에서 3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상 분야에서는 ‘방송출연자상’을 신설하고 ‘제작역량우수상’을 2편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상 분야는 프로그램 분야에서 '16년도에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우수 작품을 대상(大賞)으로, 차(次)우수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시상하고 5개 부문별로 우수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맨 마지막 다양성 부문에서는 방송 내용과 매체의 다양성 제고에 공헌한 방송 프로그램 및 동영상 콘텐츠를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입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되고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도 응모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상 분야에서는 방송문화·방송언어 등 7개 부문에서 방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시상하게 됩니다. <다> 시상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심사 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예심·본심 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직무입니다. 예심 심사위원회는 우수상에 응모한 작품 중 시상편수의 5 배수를 본심에 추천하고, 본심 심사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분야 예심을 통과한 작품과 특별상 분야 응모된 작품을 심사하여 大賞·최우수상 및 각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응모작품을 접수하여 2월경에는 작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 보면 '라디오 부문에 대한 시상 부문이 삭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독 수상 아이템으로는 라디오 부문이 없어지지만 다른 분야에 포함되어서 라디오 부문 작품들이 또 수상이 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뒤에 창의발전, 사회·문화 부문을 1점씩 늘려서 3점 중에 TV 2점, 라디오 1점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라디오 제작 종사자들의 사기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우려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라디오 부문에 수상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건전한 또는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기존 우수상 분야에 뉴미디어·라디오 부문이라고 부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분야라는 것이 다른 데가 프로그램의 창의발전이나 사회·문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라디오·뉴미디어라는 매체를 명칭으로 집어넣는 것이 적당치 않다, 그런 생각으로 창의발전 분야, 사회 분야 프로그램의 특성별로 수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집어넣게 됐고, 특별히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라디오 제작사, 방송사에다가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라디오 단독 수상 분야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를 응모할 수 있지만 지금은 라디오가 응모할 수 있는 분야가 창의발전과 사회·문화 분야로 오히려 영역이 축소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를 보면 지역발전 분야에는 라디오가 응모를 할 수 없다는 셈이 되는 것인데 지금 라디오가 지역라디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라디오들이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많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라디오라고 굳이 지역발전에 빨 것이 아니라 라디오 분야 수상영역이 없어졌다면 함께 지역발전 같은 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역의 판소리라든가 국악방송도 마찬가지지요. 또 전주 판소리 이런 여러 가지 국악 분야에도 많은데 어쨌든 그것도 지역발전에 속해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계속 살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굳이 창의발전과 사회·문화 분야 두 군데만 라디오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지역발전’이나 ‘한류’라고 해서 TV로만 한정한다 이런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시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상규모의 <표>에 보면 TV 2점, 라디오 1점, TV 2점, 라디오 1점 라디오가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 창의발전과 사회·문화 분야밖에 없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응모할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어디든 응모하지만 라디오에는 반드시 여기에 1점은 무조건 배정하라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 한류 이런 데도 라디오는 빠진다는 제한을 특별히 두지는 않았습시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 분야에 라디오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출연자상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방송출연자는 어떤 분들을 의미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동안에 방송대상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만 했는데 어쨌든 방송대상에는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출연하거나 기여한 개인도 수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작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종편 방송에 보면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예를 들어 정치 평론가, 정치 해설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방송출연자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한 것은 아닌데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출연자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품격, 시청률 제고 등에 기여한 모든 출연자가 응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모든 출연자?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중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셔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왕이면 종편 방송에 방송출연자들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또 품격을 지키지 않는 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구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아주 품격 있는 방송을 잘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시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유인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전체 방송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나 또 제작사, 방송사 단체나 개인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징계를 받거나 과징금 이런 제재를 받을 때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방송평가에 점수를 더 얹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나 개인에 대한 상을 시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이름이나 명예 이런 것으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것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뉴미디어 부문을 삭제하고 다양성 부문을 신설했다는 취지는 최근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것 같은데 시장 분야 다양성, '방송 내용과 매체의 다양성 제고에 공헌한 방송 프로그램 및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밑에 주에 '다양성 부문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되고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도 응모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응모 요강을 봤습니다. 응모 요강을 보니까 결국 응모 요강이 릴리스가 될 것인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6년도에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한 동영상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불분명한데 다양성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도가 됩니까? 제 이야기는 동영상 제작주체를 다양화하겠다, 아니면 동영상 포맷을 다양화하겠다, 타깃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 보여서 이야기하는데 사무처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들은 기존에 뉴미디어·라디오 이런 매체 위주로만 해 놓았는데 새로운 미디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형태가 정규 방송에 방송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시청하고 또 많은 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떤 매체든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든 어떤 포맷의 형태든 나와서 그것을 시청자들이 많이 즐겨 시청하고 또 높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시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이야기한 것과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야기해 보십시오. 충분히 반영되게 하자고 제안하려고 하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미국의 에미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하우스오브카드> 부분을

방송 시상식에 참여시켜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방송상에서 이른바 넷플릭스라는 곳이 3위 정도로 상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한 5위 정도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이라는 부분에서 동영상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OTT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MCN 부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동영상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의도는 좋은데 그렇다면 다른 부문은 주로 기존의 제도권 내에 있는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자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문은 주로 기존의 제도권 내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대상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다양성 부문을 신설했는데 5페이지 모집 요강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이 방송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한 동영상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 과장이 예를 든 넷플릭스나 이런 것을 예로 든 것은 이 후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가통신사업.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다면 차라리 전단에 있는 기존의 제도권 내에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제외를 한다든가, 제가 그냥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개인, 시청자,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우리가 소위 말하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사실은 저희들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다면 아까 안건 본문에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모집 요강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한 동영상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여기도 '등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다양성이 앞에 매체나 내용의 다양성 그러는데 일단 제작주체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권 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온라인사업자 내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상의 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주체를 놓고 보면 개인이 제작하는 동영상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맷을 놓고 보면 기존의 리니어(linear) 실시간에 하는 것 외에 요새는 웹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양성의 의미가 제작주체와 포맷의 다양성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응모가 되고 어떤 것을 선정할지는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문호를 최대한 열어놓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대상이 기본적으로 인식이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늘 법·제도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상제도에 있어서도 그런 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EU의 소위 말하는 '시청각 서비스 지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 서비스 디렉티브'에 보면 크게 세가지 개정이 됐는데 첫째는 방송 프로그램의 용어에서 'TV 라이크'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다, 넷플릭스다 하는 소위 말하는 비디오 셰어링 플랫폼 서비스 개념을 넣고 UGC 개념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법·제도상으로 그런 연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하고 이것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다양성, 아직 클리어 하지 않지만 저는 문호를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확 개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안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들이 처음 만들 때는 거기까지 깊이 있게 고려를 못 했었는데 이 부문 도입 취지가 그런 것들을 제한 없이 새로운 다양성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작품을 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런 방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OTT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해서 OTT를 통해서 내보낸 콘텐츠뿐만 아니라 개인이 만든 콘텐츠를 예를 들자면 네이버 캐스트나 카카오톡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보낸 것들, 요즘 그것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제한 없이 누가 제작을 했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이 제공됐든 다 포섭해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심사해서 상을 주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잘 담기도록 응모 요강을 조금 표현을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응모 대상 및 편수에서 각 사업자별 2편, 이러면 마치 사업자만 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키니까 개인도 포함시킨다든지 또는 이 앞부분에 응모대상을 지금 논의 나온 것처럼 좀 더 설명을 풀어서 한다든지 또는 예시해서 몇 가지 나열해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나도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대상 시상식을 운영하는 취지가 우수 방송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방송사와 제작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가운데에서도 중앙에 있는 키(Key)사나 대형 방송사 외에 지역 방송사들의 제작역량, 지역방송사와 군소방송사들의 제작역량을 알리고 제작역량을 신장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방송대상 시상에서는 지역방송사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방송사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계기가 됐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그 성과로서 좋은 작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전 지원뿐만 아니라 수상작품을 사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작자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직무냐, 아니냐

이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도 해야겠지만 사실상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들, 제작자들 지원하는 것이고 또 좋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까지도 연계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대상 시상 제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특히 중앙 지상파 정도 되면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활용, 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망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지역 방송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방송 지원예산 중에 유통지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서로 연계해서 만약에 지역방송이 프로그램 분야에서 우수한 상을 수상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 방송대상의 상금이 다른 방송상보다 많지 않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물론 정부 예산 방통발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권위와 선양, 홍보일 텐데 '방통위의 방송상을 받으면 알아준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면 대체로 특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평가, KI 평가 여론조사 내용 중에 '재미있다', '유익하다', '건전하다', '사회적 가치가 있다',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다른 방송상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상 심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물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자율성·독립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닌 말로 건전성 같은 것이야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공익성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제작자들 PD들이 봤을 때 종합예술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작이 잘 됐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겠지요?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하여튼 그냥 재미있다는가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방통위의 방송대상에서 강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을 받고 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후에 활용

할 것인가, 홍보할 것인가? 물론 발표하면 언론들이, 시민단체들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우리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방송대상의 사후 활용도라든가 또는 권위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전통이 쌓이고 명예로우면 상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문화 예술 문학상 중에 아주 권위 있고 유명한 문학상 상금 1달러, 1유로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작가가 부자가 되지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지금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해외 시장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상했던 KBS 대기획 <넥스트 휴먼>도 그렇게 해서 외국에 방영이 될 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많이 활용하겠지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대상 2,000만원, 아까 상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또 제작진들,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하지요.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최우수상 800만원, 상금이 대상의 반도 안 되는데 우수상 각 400만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차등을 확 주는 것이..., 물론 그랑프리 대상으로서 그만한 대우는 해야 할지 모르지만 최우수상 아마 점수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반도 안 되게 상금을 주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평준화한다고 할까, 조금 좁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2,000, 1,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우수상은 각 4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약소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차등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올해는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예산심사를 할 때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금 액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올해는 또 특히 다양성 부분의 상을 새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출연자상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상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심사 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상금 안배가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라도 시상금 문제는 오늘 보고한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많이 아이디어 내신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은 3월 20일 시상식 개최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서 지금 배 국장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년도 시상할 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 시상식 개최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인데 추장(抽獎), 선장(選獎)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은 놔두고라도 우리 위원장상 시상하실 때 부위원장님과 다른 세 분 위원님이 같이 연단에 올라가서 박수를 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약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모집 요강 다양성...

○ 최성준 위원장

- 모집 요강 다양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중에 이번 시상식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에 더 나은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그러면 다음 회의는 1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1분 폐회 】